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간 방위협력 확대

● 朴 星 俊 / 三星航空  
항공우주연구소

국제정세가 화해의 시기임을 말하고 있으며, 미국—소련, 소련—중국 데탕트와 캄푸치아의 평화가 내다보이는 이때, 동남아 3개국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어떠한 외부 위협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면에서 볼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간의 급격한 군사협력의 강화는 확실히 동남아시아의 정치정세에 하나의 새로운 轉機가 될 것이다

**말레이** 지역은 오랫동안 상승과 하강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곳은 한때 말라카제국시대의 문예부흥기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으며 역사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후 이 지역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끝없는 분쟁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鬪鷄場(cockpit)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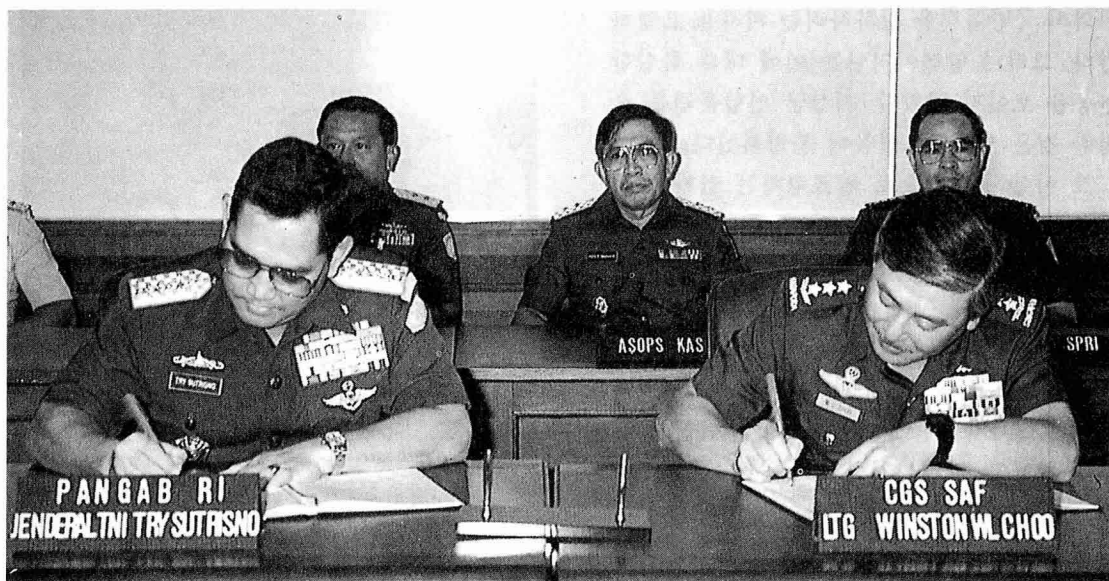
잔악무도한 일본의 점령에 이어 유럽의 침략과 식민지화는 이 지역의 지역국가주의에 불을 당김으로써 분열을 조장하였다. 말라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탄생하였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뒤이어 탄생하여 지울수 없는 쓰라린 분단관계로 남고 말았다.

소에카르노(Soekarno)의 콘프론타시(Konfrontasi), 수마트라(Sumatra)와 술라웨시(Sulawesi) 독립운동에 대한 쿠알라룸푸르의 無言의 支持, 브루나이(Brunai)에서의 아자하리(Azahari) 혁명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지 그리고 中華 싱가포르에 대한 쿠알라룸푸르의 의구심은 상호불신이 가져온 공허한 이미지와 인식만을 남겼다.

말레이지역에 속한 각국의 제1의 목표는 멀리 있는 적보다 인접국가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멀리 있는 위협은 겉으로 확실히 알수 있지만, 실질적인 적은 흔히 그들의 국경에 있었다. 이들 각국의 국방정책은 상대국들의 도발을 억제시키는 것이었다.

이런 위기감속에서 각국이 취해온 안보에 대한 자세는 보통 동남아시아인 스타일이었으며, 상대방의 주목을 피하면서 확실히 그들을 노리는 것이었다.

1967년 8월 아세안(ASEAN, 여기서 브루나이는 論外로 한다)의 창설로 어느 정도 상호간의 격차가 해소되었다. 우선 중국 공산주의의 위협 그리고 공산베트남으로부터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말레이세계는 그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협동정신을 키우고 단결하여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인 Sutrisno 장군과 싱가포르군 참모총장인 Winston Choo 장군이 1989년 2월 23일 양국에 의해 공동으로 건설된 시아브(Siabu) 항공사격장의 공동 관리 및 인도네시아내 싱가포르군 훈련시설을 규제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런 정신의 확실한 표명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해지는 것은 국방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그들의 의지였다.

일찌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국방협력은 수하르토(Soeharto) 정부가 들어선 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칼리만탄(Kalimantan) 국경을 연한 海空연합훈련에서 절정에 다다랐다.

자카르타도 에랑인도프라(Elang Indopura)와 앵글렉(Englek) 시리즈 훈련을 통해 海空협력을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5개국 국방협정의 참여와 양국간의 공동 海空훈련을 통해 국방협력을 시작하였다.

1970년 베르사투파타(Bersatu Pata) 훈련을 제외하고 쌍방의 문제점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에 지상군 협력관계는 찾아볼수 없게 되었다. 오랫동안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군이 조호르(Johors)에 있는 정글戰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로 하여금 브루나이나 기타 국가에서 훈련장소를 물색토록 하였다.

후일 마하티르(Mahathir) 집권하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로 한무리의 싱가포르 병력이 울루티람(Ulu Tiram) 소재 정글戰 훈련센터에 입토히 허락받았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뿐이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지상군 협력관계는 전혀 없었다.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제한된 국방협력 특히 지상군 협력에 대해 1989년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간에 새로운 지상군 협력의 발표는 당연히 하나의轉機가 되었다.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地上軍 협력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사실은 1988년 7월 싱가포르의 상공부장관이자 국방부장관인 리헤이엔룽(Lee Heien Loong) 준장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때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후 1989년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리」장군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지

아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이에 대해 확실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상군 연합훈련을 요청한 것은 싱가포르였음이 분명하였다.

그 이상 공식적으로 발표된바는 없지만 싱가포르 고척통(Goh Chok Tong)총리의 1989년 1월 말레이시아 방문시 양국이 처음으로 기존 海空협력관계에 이어 지상군 협력관계를 맺는데 합의했다고 발표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가 自軍의 실사격훈련에 말레이시아의 육군 중대를 초청했고, 말레이시아도 사바(Sabah) 소재 코타벨루드(Kota Belud)에서의 유사한 훈련에 싱가포르 병력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함께 일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영공은 분리될수 없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국방은 서로 분리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안보측면에서 더 이상 아귀다툼을 벌일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하고 협력하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하고, 그들이 빠져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다』

「고」장관 또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안보에 관한한 동일한 전력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데 동의하였다.

말레이시아군 총사령관은 말레이시아가 1989년 5월 그들의 실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싱가포르에 초청받은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하면서 참여병력규모나 사용된 병기 및 훈련형태를 포함한 상세한 연합훈련의 내용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훈련을 실시키로한 양국간의 합의가 하나의 커다란 돌파구라는 「리」장군의 견해를 납득할수 있다.

「리」장군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육군부대를 함께 훈련시킨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말레이시아 국왕이자 군 최고사령관인. 양(Yang)국왕이 4월 1일 말레이시아군 사열시 아세안국가들의 최고사령관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인도네시아의 Sutrisno 장군, 싱가포르의 Winston Choo 장군, 태국의 Chaovalit 장군, 브루나이의 Pehin 장군이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른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1965년 8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싱가포르의 축출, 그후 양국간의 첨예한 정치적 관계 특히 정치지도자들 사이의 관계, 또 싱가포르가 중국의 작은 도시국가이며 해외중국인의 거점이지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의 안식처라는 인식과 역사적으로 대립된 민족관계로 보아 양국간의 충돌과 오인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인식등이 그것이다.

또한 외관상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군사적 측면에서의 전혀 득실이 없는 양국관계의 본질 그리고 양국간에는 싱가포르 국방정책의 본질 즉 이스라엘과의 밀착, 중국과의 관계, 非말레이시아인의 해외축출을 위한 면밀한 정책, 소수민족에 대한 싱가포르의 하찮은 대우는 특히 헤르조그(Herzog)사태에 의해 여실히 입증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차이점을 고려하면 양국간의 지상군 협력관계를 거의 찾아볼수 없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호 지상군 연합훈련을 갖기로 한 결정은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말레이계 말레이시아와 중국계 싱가포르 사이의 정치적 결빙이 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사실은 싱가포르의 군사적 지위가 지역내 다른 말레이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국방협력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인도네시아와 오랜 海空방위협력관계를 유지해왔지만, 1989년초 페칸바루(Pekan Baru) 인근의 살라부(Slabu)에 소재한 싱가포르 공군용 항공사격장을 개장하고, 싱가포르군이 인도네시아 영토내에서 훈련받을수 있도록 한 양해각서의 교환을 계기로 급격히 강화되었다. 시아부(Siabu) 항공사격장은 거의 2년에 걸친 어려운 작업후 결실을 보게되었다.

1987년 중반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1988년 8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5백만 싱가포르 달러의 비용으로 공동개발한 훈련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소요예산은 50:50으로 분담되었다.

이 사격장은 싱가포르군 참모총장인 윈스턴(Winston)중장과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인 트

라이 수트리스노(Try Sutrisno)장군의 임석하에 1989년 3월 22일 개장되었다. 이 시아부(Siabu) 사격장은 공대지 사격훈련용 연습장과 전투훈련용 모의활주로인 전술훈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아세안(ASEAN)국가들에게 이 사격장을 개방해오고 있다.

싱가포르군 참모총장과 인도네시아군 총사령관 사이에 1989년 3월 28일 서명된 이 양해각서는 양국간의 국방협력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이 양해각서의 교환으로 싱가포르군은 인도네시아내의 어느 곳에서나 훈련을 할수 있게 되었다.

수트리스노 장군에 따르면 『만약 그들이 정글, 산악, 사바나 혹은 사막지대를 원한다면, 인도네시아는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군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다.

그 댓가로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의 군사기술 공유에 동의하였다. 이 양해각서에서는 연합훈련은 물론이고 싱가포르가 단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훈련을 실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베타라자(Beta Raja)에 위치한 이전의 인도네시아 훈련장을 싱가포르군이 사용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 일본과 동남아시아

1945년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관계는 3단계로 나누어 검토해볼수 있다. 2차대전의 종전에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제1단계는 다소 침체된 외교정책으로 특징지을수 있는 기간이다. 일본은 戰後문제의 해결에 부심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침체는 일본의 과거 군사침략주의와 뒤이어 일어난 패전의 결과였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제2단계는 지역내 다른 국가들과 일본의 광범위한 경제협력으로 특징지을수 있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이며, 지역

1988년 8월 싱가포르 정기방문시 M 339에서 내려오는 말레이시아 공군을 싱가포르 공군장교들이 환영하고 있다  
5개국 국방협정하에 양국이 海·空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목표하에 정치적 협력관계를 강화한 시기이다.

1960년대까지 일본의 GNP는 미국의 절반에 달했다. 그러나 유럽경제에 비해 일본경제의 상대적 허약함 때문에 수출입은행에 의한 수출신용 제공이나 소규모 기술협력 이외에 이렇다할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정부 재정지원의 결핍, 민간부문의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제한된 외환보유, 민족주의의 대두로 동남아시아인들의 신중한 해외투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보기 드문 경제성장으로 상황은 변하였고,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현상은 무역, 경제원조, 투자의 3가지 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무역에서 아세안은 미국에 이어 일본의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 되었으며, 일본 수출액의 10%가 아세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일본은 아세안 전체 무역액의 30~35%를 차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경제원조면에서 아세안은 일본 공공개발원조(ODA)의 가장 큰 수혜국들이었다. 또한 이 국가들은 미국에 이어 일본 민간기업 해외투자의 두번째로 큰 대상국들이다. 1960년대부터 1979년까지의 ODA합계는 41억달러에 달하였고, 아세안은 미국에 이어 일본 해외투자의 두번째로 큰 대상국들이다. 이들 국가는 3백40억 달러 투자액중 66억달러를 받았다. 아세안국가들에게 일본은 가장 큰 투자국이며, 전체 투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문화적 관계는 거의 무시할수 있을 정도이다. 지형, 문화적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언어, 종교, 전통, 관습, 경제발전에서의 차이때문에 그들은 서로 멀어질수 밖에 없었다.

일본의 문화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다나카의 동남아순방과 관련된 폭동이후의 일이었다. 이는 다음 프로

그램들을 통해 시도되었다.

- 학생 및 청소년 교환방문 계획
- 일본재단 프로젝트들
- 일본—아세안 청소년단
- 아세안 문화기금
- 아세안 청소년 장학 프로그램
- 교육문화 원조계획
- 아세아지역 연구 프로그램

1945년 특히 1951년 이후 미국은 일본의 경제 외교정책의 주춧돌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자 할때 미국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못하였고, 엔화의 강제 평가절하로 상당한 상처를 받았을때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동시에 1975년이후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지역내에서 더 큰 정치적, 군사적 역할을 수행토록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1974년 다나카의 동남아방문은 일본이 지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려는 의도의 표명이었다. 방문목적은 다음과 같다.

## 一笑一少一怒一老

### 암전한 고양이

두 명의 아가씨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다.

「애, 그전에 사귀던 그 사람 어떻게 됐니?」

『으응, 헤어졌어. 아무리 봐도 신사가 아니더라』

『글쎄 만나기만 하면 으레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서 허벅지를 더듬는거야』

「꽤 적극적인데 좋지 않았니」

『농담말야. 나도 예의범절은 알아. 행실이 좋은 처녀라면 누구든 가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구』

- 일본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방문국 지도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 친선관계 정립과 강화
- 양국간의 현안문제들을 이해하는 것
- 해당지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설명
- 적절한 지역협력수단의 모색
- 아세안과 일본의 경제협력에서 量的 및 質的 개선방안 검토

인도차이나국가들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관계개선은 동남아국가들 특히 아세안에 대한 더욱 허심탄회한 일본의 정책때문이었다. 이런 정책은 직접적으로 1977년 8월 18일 후쿠다의 동남아방문과 마닐라에서 이른바 후쿠다 독트린이란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三本柱(Three Pillars)정책의 발표를 가져왔다. 그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모색하고 어떠한 군사력의 행사도 배격한다.
- 일본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신뢰의 관계를 추구한다.
- 일본은 아세안국가들의 동등한 파트너이며, 그들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인도차이나의 상호이해관계를 확립한다.

### 국방협력의 중요성 증가

최초의 3각 방위공동체가 아세안군사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동남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3개국간에 어떠한 방위협정도 없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개국의 협력관계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

1988년 3개국 군수비가 인도네시아의 발리(Bali)에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회합을 가졌다는 사실이 공표되었다. 3개국 군사협력관계의 발전은 지역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수트리스노 장군에 따르면 그것은 탄력과 안정이 있는 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거미집배열을 이룰수 있다. 군사적 협력 및 각국의 군사적 요구와 독트린의 이해를 통해 더욱 밀착된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전통적인 장애요인들이 제거되고, 아세안국가들이 향후 닥쳐올지 모를 내외부의 충격에 견딜수 있게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싱가포르공화국이 맨 먼저 섬으로 구성된 말레이계 동남아시아에서 군사동맹국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통성을 제외하고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경불가침 정신에 입각하여 그것은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일층 강화할 것이다.

국제정세가 화해의 시기임을 말하고 있으며 미국—소련, 소련—중국 데탕트와 캄푸치아의 평화가 내다보이는 이때 동남아 3개국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어떠한 외부 위협이 없edah지라도 이런 면에서 볼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간의 급격한 군사협력의 강화는 확실히 동남아시아의 정치정세에 하나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상호불신의 벽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외부위협을 출현으로 사라졌다면 3개국간의 새로운 국방협력시대를 맞이하여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의 국방관계는 그들의 고립이 여하한 외부의 통합세력도 필요치 않았던 것이며, 공동보조와 지역단위 결속의 값어치를 새삼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

### 참 고 자 료

- ▲ 「Singapore, Malaysia and Indonesia : Growing Defense Cooperation」, 〈Asian Defense Journal〉, 1989년 5월호
- ▲ 「Japan and Southeast Asia」, 〈ADJ〉, 1989년 6월호
- ▲ 〈The Straits Times〉 1989년 1월 28일, 3월 16일 · 23일 · 24일자
- ▲ 「Singapore—A State Prepared to defend itself」 〈Mil-tech〉, 1989년 3월호.